

'1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공채(남·여) · 101경비단 -

【국 어】

응시 번호 :

이름 :

1. 다음 중 사이시옷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등곶길, 윗쪽, 좇점
- ② 등곶길, 위쪽, 초점
- ③ 등교길, 윗쪽, 좇점
- ④ 등교길, 위쪽, 초점

2. 다음 문장이 어색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생은 형보다 장난감을 더 좋아한다.

- ① 비교 대상이 모호하다.
- ② 불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 ③ 피동 표현이 이중으로 사용되었다.
- ④ 의존 명사 구문이 모호하게 쓰였다.

3. 다음 단어들과 공통적으로 대립하는 반의어는?

- (입을) 다물다. · (문을) 닫다.
- (뚜껑을) 덮다. · (마개를) 막다.
- (자물쇠를) 잠그다.

- ① 가다 ② 벗다
- ③ 서다 ④ 열다

4. 다음을 고려할 때, 단어 형성 방식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단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한 단위인데, ‘산, 강’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한다. 한편 ‘꽃사과’처럼 파생 접사와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하며, ‘밤낮’처럼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 ① 군말 ② 돌다리
- ③ 덧가지 ④ 짓누르다

5. 다음 <보기>의 표준 발음법 규정에 비추어 이중 모음의 발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ㅈ, ㅉ, ㅊ,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ㅌ, ㄴ, ㄹ’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ㄹ’은 [ㄹ]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ㄹ]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① 우리의[우리에] ② 계시다[계:시다]
- ③ 귀땀[귀땀] ④ 차례[차례]

6. 다음 관용 표현의 뜻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입추의 여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꼭 들어차다.
- ② 마각을 드러내다: 숨기고 있던 속마음이나 정체를 보이다.
- ③ 변죽을 울리다: 바로 집어 말하지 않고 둘러서 말을 하다.
- ④ 허방을 쫓다: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에 몸을 의지하다.

7.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도와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로운 처지
- ㉡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
- ㉢ 세상이 몹시 달라져 딴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짐
- ㉣ 가난한 사람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님

- ① ㉠ - 孤立無援 ② ㉡ - 曲學阿世
- ③ ㉢ - 隔世之感 ④ ㉣ - 男負女戴

8. 다음은 ‘문화 산업을 육성하자.’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이 개요를 수정하기 위해 제기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 문화 산업을 육성하자.

I. 도입: 문화 산업이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II. 전개 1: 문화 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 (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예술 창작 기회의 마련
- (나) 지적 재산권 보호를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를 고취
- (다) 예술적 아이디어와 상업적 자본의 결합을 통한 대형 예술 기획 체제 마련

III. 전개 2: 문화 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는 이유

- (가) 전통적인 경제 체제에서의 수익을 능가하는 경제적 이익
- (나) 문화 산업은 고부가가치 고성장 산업
- (다)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IV. 요약 및 마무리: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당부

- ① 주제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화 산업을 육성하자.’를 ‘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로 바꾼다.
- ② ‘I. 도입’에 ‘한류 문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나 세계 문화에 끼치는 영향력’ 등의 예를 들어 흥미를 유발시킨다.
- ③ ‘II. 전개 1’의 ‘(다)’는 이 글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④ 글의 전체 흐름에 맞추어 볼 때, ‘II. 전개 1’과 ‘III. 전개 2’의 내용은 순서를 바꾼다.

9. 다음 중 ‘ㄷ’, ‘ㄸ’, ‘ㅌ’ 소리의 공통 자질로만 묶어 놓은 것은?

- ㉠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소리
- ㉡ 조음 기관의 어떤 부분이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
- ㉢ 혀의 앞부분이 딱딱한 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
- ㉣ 소리를 낼 때 공기가 빠져 나가면서 마찰이 나는 소리
- ㉤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① ㉠, ㉡ ② ㉡, ㉢
- ③ ㉢, ㉣ ④ ㉣, ㉤

10. 다음 중 밑줄 친 단어가 바르게 쓰인 것은?

- ① 학생들은 공책에 책받침을 받치고 쓴다.
- ②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바쳐서 꿈쩍을 못한다.
- ③ 신에게 제물을 바쳐 우리 부락의 안녕을 빌었다.
- ④ 이것을 돌절구에 뺨아 가는 체로 받혀서 다시 가져오겠다.

11. 다음 중 ㉠~㉣에서 온돌과 관련된 의미 중 나머지 셋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온돌의 진정한 과학다움은 경험적 측면에서 접촉을 장려한다는 점에 있다. 내 집을 등으로, 엉덩이로, 배로 비비며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정(情)이라는 한국적 정서가 건축양식 속에 녹아든 좋은 예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 연인 사이, 친구 사이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인 ㉡스킨십을 집과 나누는 셈이다.

온돌은 기본적으로 ㉢좌식 생활에 적합하다. 방바닥에 털버덕 앉아 여유를 즐기는 문화와도 잘 어울린다. 좌식 생활은 분명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따끈한 아랫목에 엉덩이를 대고 한번 앉으면 웬만해서는 일어나기 귀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온돌방에 앉아 바라보는 ㉣풍경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체감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한옥에서 창을 방바닥에 바짝 붙여 내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나지막한 높이의 창문은 허리와 무릎을 많이 쓰게 해 운동에도 효과적이다.

- ① ㉠ 정(情) ② ㉡ 스킨십
- ③ ㉢ 좌식 생활 ④ ㉣ 풍경

12. 다음 중 ㉠~㉣의 의미와 같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을엔 파리뿐 아니라 살구나무도 흔했다. 살구나무가 없는 집이 없었다. ㉠여북해야 마을 이름도 행촌리(杏村里)였겠는가. 봄에 살구나무는 개나리와 함께 온 동네를 꽃대궐처럼 화려하게 꾸며 주었지만, 열매는 ㉡시금털털한 개살구였다. 약에 쓰려고 약간의 씨를 갈무리하는 집이 있긴 해도 열매는 아이들도 잘 안 먹어서 떨어진 자리에서 썩어 갔다.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필 무렵엔 자운영과 오랑캐꽃이 들판과 ㉢둔덕을 뒤덮었다. 자운영은 고루 질펀하게 피고, 오랑캐꽃은 소복소복 무리를 지어 가며 ㉣다문다문 피었다. 살구가 흙에 스며 거름이 될 무렵엔 분분히 지는 짙레꽃이 외진 길을 달밤처럼 숨가쁘고 그윽하게 만 들었다.

- ① ㉠ - 오죽하면
- ② ㉡ - 맛이 조금 시면서 뚝은
- ③ ㉢ - 물가의 언덕
- ④ ㉣ - 사이가 맞지 않고 조금 드물게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구는 국가 존립의 한 요소이며,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인구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그 규모가 곧 생산과 소비양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불균형해지면 한쪽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인구 규모가 작아지고 있으며, 그 구조 또한 불균형해지고 있다. 따라서 육아와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따르는 문제점을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국제 연합 인구 기금(UNFPA)은 전 세계 156개국의 인구 현황을 분석한 ‘2008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합계 출산율)가 1.2명으로 홍콩(0.96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1960년(6.0명)의 5분의 1이고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 이하이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녀 수(대체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세계 26위인 한국의 총인구는 2050년 44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국의 상황은 보고서 내용보다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198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출산율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의 ‘핵심 생산 연령 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45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54만 명이 증가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좁은 국토 면적, 부족한 부존자원(賦存資源), 높은 청년 실업률을 감안하면 ‘양질(良質)’의 적은 인구가 국가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압축적 인구 변동은 재앙(災殃)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촌의 인구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제 연합(UN)마저도 이런 면에서 한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13. 뒷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출산 대책
- ② 인구 감소의 장단점
- ③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 ④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대책

14. 뒷글의 구성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쪽의 모순점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다.
- ④ 전제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연역적 구성 방식이다.

15.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강한 적에게 덤비는 무모한 행동’을 비유하는 말로, 아래 <보기>에서 유래된 것은?

<보기>

계철(季徹)이 꺾꺾 웃으면서 말하였다. “만약 선생의 말을 제왕(帝王)의 덕(德)에다 비추어 본다면 마치 사마귀가 앞다리를 벌리고 수레바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이니, 반드시 당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한다면 곧 그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높은 누대(樓臺)를 갖게는 되겠지만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에게로 몰려드는 사람만이 많아질 것입니다.”

- ① 봉정만리(鵬程萬里)
- ② 문경지교(勿頸之交)
- ③ 당랑거철(螳螂拒轍)
- ④ 와신상담(臥薪嘗膽)

16. 다음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파도는 높고 하늘은 흐렸지만 그 속에 솟구막 치면서 흐르는 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영상은 푸르고 맑은 희망이었다. 나는 어떻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구원됐는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내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다만 한 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 ① 주인공 ‘나’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작가가 주인공 ‘그’에 대해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작가가 제3의 인물 ‘그’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 ④ 주인공 ‘나’가 다른 인물에 대해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17. 다음 ㉠, ㉡의 한자 표기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김득신은 나이 20세가 되어 비로소 글 한 편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더욱 정진하여 59세에 이르는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성균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 ① ㉠科擧 ㉡及第
- ② ㉠過擧 ㉡擧濟
- ③ ㉠科擧 ㉡擧濟
- ④ ㉠過擧 ㉡及第

18. 다음 중 밑줄 친 어휘가 잘못 사용된 것은?

- ① 내 방 탁상시계는 삼십 분이 나 늦다.
- ② 시험지를 정답과 맞춰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 ③ 판사는 모든 재판을 불편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 ④ 김 부장의 사위는 이 지방에서 이름난 재원이다.

19.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높임 표현 중에서 그 용법이 다른 것은?

- ① 명절을 맞아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 ② 그저께는 할아버지께서 댁에 계셨다.
- ③ 나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밖으로 나갔다.
- ④ 영이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시고 와서 저녁을 대접했다.

20.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관령 Daegwallyeong
- ② 세종로 Sejong-ro
- ③ 셋별 saetbyeol
- ④ 오죽헌 Ojukeon